

금융산업

금융전략: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접근 필요

SK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설용진

s.dragon@sks.co.kr
3773-8610

여러 기대감에 기반한 금융업종의 주가 상승

최근 상법 개정 등 이슈와 맞물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금융업종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실질적인 기업의 변화 등에 따른 주주가치 측면의 변화라기보다는 높아진 기대감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향후 관건은 주가에 내포된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간 괴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는 1) 실제 주주에게 귀속되는 숫자와 2) 밸류에이션 측면의 요인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목 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옥석가리기 필요한 구간

금융업종 접근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 등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 은행업종의 경우 종합적인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증권업종은 실적 기대감은 높지만 높은 변동성, NCR 규제에 한계 등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종의 경우 IFRS17 이후 높아진 이익과 별개로 현재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으로 중하위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 없이는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익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언론보도로 제시된 내용 및 당사 배당수익률 추정치 기준 기업은행, NH 투자증권,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투자 매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제시하며 리스크 기반의 자본집약적 산업인 금융업종 특성상 ROE와 PBR 수준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일부 기업의 경우 다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최근 언급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보유 자사주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주당 가치 제고에 따른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제고가 예상되며 언론 보도를 감안했을 때 커버리지 금융사 중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의 보통주 자사주 지분이 10%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소각에 따른 BPS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예상 ROE 및 현 주가 감안 시 10% 초과분 소각에 따라 BPS가 증가하더라도 DB손해보험 외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다. 언급한 기준을 감안했을 때 은행업종의 경우 시중은행 등 상위사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등 실질적인 주주환원 여력과 밸류에이션 매력에 기반한 Upside가 남아있다고 판단하며 증권업종의 경우 ROE 수준을 감안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대체로 양호한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삼성증권 등을 선호한다. 보험업종의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매력과 배당수익률 등 요소를 모두 충족하

1. 여러 기대감에 기반한 금융업종의 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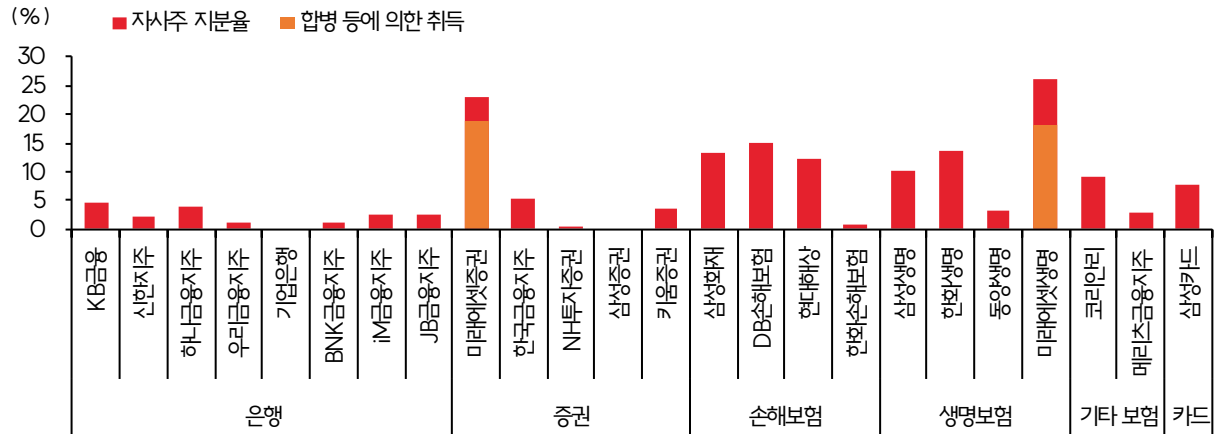
(1)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업종 주가 상승

최근 정책적인 상법 개정 등과 맞물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업종 내 주요 종목들의 저평가 구간이 장기간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만큼 향후 적극적인 주가 부양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발의 등에 대한 논의가 나타남에 따라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커버리지 - 전일 종가 및 수익률 추이								
산업	기업명	전일 종가 (25/07/09)	1W	1M	3M	6M	YTD	1Y
은행	KB 금융	118,400	5.6%	6.8%	31.3%	29.1%	42.8%	39.0%
	신한지주	69,800	10.8%	13.7%	35.8%	36.6%	46.5%	35.5%
	하나금융지주	94,100	10.2%	9.0%	45.9%	55.5%	65.7%	50.8%
	우리금융지주	24,900	8.7%	10.9%	40.6%	54.7%	62.0%	69.5%
	기업은행	20,150	6.3%	10.4%	31.4%	29.7%	40.6%	45.2%
	BNK 금융지주	14,440	7.8%	16.0%	39.5%	18.8%	39.7%	67.9%
	iM 금융지주	14,350	8.7%	14.2%	39.6%	55.6%	75.4%	81.2%
	JB 금융지주	24,000	11.1%	16.8%	40.6%	21.4%	47.4%	63.9%
증권	미래에셋증권	22,100	14.0%	3.0%	86.5%	162.2%	175.2%	193.1%
	한국금융지주	151,800	14.2%	8.7%	82.9%	90.9%	112.9%	113.8%
	NH투자증권	21,850	9.8%	9.3%	42.3%	51.3%	56.6%	70.4%
	삼성증권	75,700	8.3%	2.9%	45.0%	66.0%	74.0%	74.2%
	키움증권	232,500	10.5%	1.5%	69.7%	85.7%	100.1%	67.9%
손해보험	삼성화재	478,500	10.6%	10.3%	27.8%	25.4%	33.5%	30.7%
	DB 손해보험	133,400	8.1%	8.2%	46.3%	37.4%	29.8%	26.1%
	현대해상	27,550	0.7%	4.2%	24.1%	11.3%	11.5%	-18.2%
	한화손해보험	6,100	11.3%	5.9%	49.5%	50.1%	51.4%	20.3%
생명보험	삼성생명	133,000	7.3%	4.4%	54.3%	49.3%	40.3%	47.1%
	한화생명	3,755	17.9%	14.0%	41.7%	50.5%	52.6%	26.9%
	동양생명	8,190	23.9%	20.8%	34.0%	76.7%	82.4%	7.6%
	미래에셋생명	7,400	16.4%	17.1%	35.8%	45.7%	40.4%	37.0%
재보험/보험지주	코리안리	11,280	9.7%	10.2%	39.3%	36.9%	41.9%	42.1%
	메리츠금융지주	117,000	3.3%	4.0%	-5.7%	2.5%	12.5%	45.0%
카드	삼성카드	52,900	2.9%	7.1%	26.1%	26.0%	34.1%	35.1%

자료: FnGuide, SK 증권

커버리지 금융업종 - 자사주 지분 현황



자료: FnGuide, SK 증권

커버리지 금융업종 - 밸류업 공시 중 자사주 관련 내용

산업	기업명	밸류업 공시 중 자사주 관련 언급
은행	KB 금융	- 공통적으로 배당성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저평가 구간에서 자사주 확대 등 추진하는 내용 언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BNK 금융지주	
	iM 금융지주	
증권	JB 금융지주	- 매년 보통주 1,500 만주, 2 우선주 100 만주 이상 소각 추진 -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 이상 소각 목표 - 관련 언급 없음 - ROE와 CoE 비교하여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손해보험	키움증권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삼성화재	- 실적변동성 작은 사업부문의 경상이익 중심으로 배당 활용 - 경상이익 초과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활용
	DB손해보험	- 보유 자사주는 4년간 소각을 통해 5% 미만으로 축소 계획 - 관련 언급 없음
	현대해상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한화손해보험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생명보험	삼성생명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한화생명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동양생명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미래에셋생명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보험 기타	코리안리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메리츠금융지주	- 요구수익률과 ROE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달성할 수 있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결정
카드	삼성카드	밸류업 관련 공시 없음

자료: 각사, SK 증권; 미공시 기업은 음영처리

(2)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과 밸류에이션 중심 접근 추천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금융업종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결국 실질적인 기업의 변화나 행동에 따른 주주가치 측면의 변화라기보다는 최근 제도/환경 변화 등으로 높아진 기대감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향후 관건은 주가에 내포된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간 괴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는 1) 실제 주주에게 귀속되는 숫자와 2) 밸류에이션 측면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목 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5E 예상 ROE 및 PBR 현황

산업	기업명	25EROE (%)	25E PBR(배)	Implied CoE
은행	KB 금융	10.3	0.8	13.6%
	신한지주	9.5	0.6	16.8%
	하나금융지주	10.1	0.6	16.9%
	우리금융지주	9.2	0.5	17.8%
	기업은행	9.1	0.5	19.8%
	BNK 금융지주	7.5	0.4	19.7%
	iM 금융지주	7.8	0.4	19.7%
	JB 금융지주	12.8	0.7	17.2%
증권	미래에셋증권	8.1	1.2	7.0%
	한국금융지주	12.6	0.8	15.3%
	NH 투자증권	9.6	0.8	11.4%
	삼성증권	12.6	0.8	15.3%
	키움증권	15.9	1.0	16.3%
손해보험	삼성화재	12.8	1.4	9.0%
	DB 손해보험	20.1	1.2	17.2%
	현대해상	17.7	0.5	32.2%
	한화손해보험	14.2	0.3	43.9%
생명보험	삼성생명	7.1	0.9	8.1%
	한화생명	6.9	0.4	18.4%
	동양생명	17.0	1.0	17.0%
	미래에셋생명	3.8	0.5	7.3%
재보험/보험지주	코리안리	11.5	0.8	13.8%
	메리츠금융지주	25.8	2.0	13.1%
카드	삼성카드	7.6	0.7	11.5%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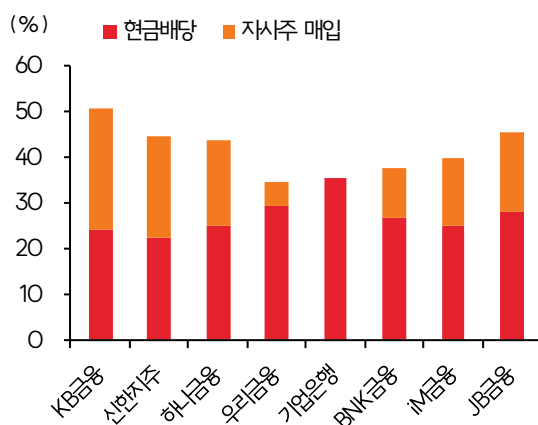
2.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옥석가리기 필요한 구간

(1)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숫자에 주목

현재 금융업종 접근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로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업종에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 기업의 이익/실적, 2) 주주환원과 성장 간 자본 배분의 기준, 3) 자본 규제 등 실질적인 배당 여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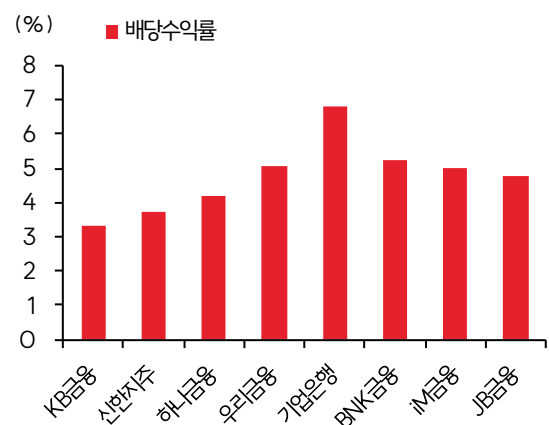
은행업종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인 안정성이 모두 높다고 판단한다. 1) 건전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는 자산 및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 밸류업 공시를 통해 RWA 성장, CET1 비율 타겟을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자본과 잉여자본을 구분하여 주주환원 타겟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3) 은행 등 주요 자회사 배당 등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한다. 배당 수익률의 경우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주가 상승으로 현재 약 3% 초반~5% 초반 수준이 예상되지만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총 주주환원 기준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은행업종 - 25E 총 주주환원을 전망



자료: 각사, SK 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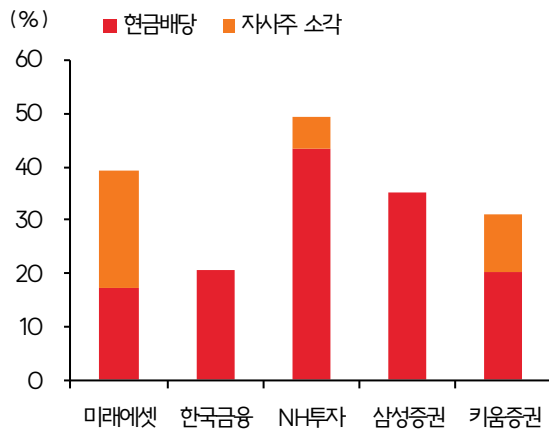
은행업종 - 25E 배당수익률 전망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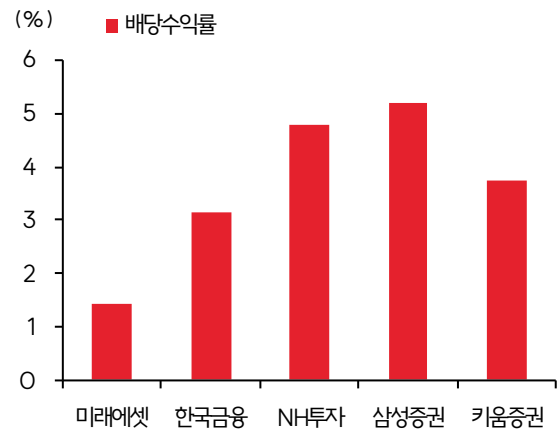
한편 증권업종의 경우 최근 증시, 금리 등 업황을 감안했을 때 이익 측면의 기대감은 가장 크다고 판단하며 배당 등 주주환원 재원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변동성, 명확한 자본 여력을 보여주기 어려운 NCR 규제 현황 등 요인을 감안했을 때 회사가 밸류업 공시 등을 통해 제시한 목표를 제외하면 성장과 주주환원 간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배당수익률의 경우 최근 주가 상승에 따라 1.4%~5.0%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으며 자사주의 경우 매입 후 즉시 소각이 아닌 과거 매입한 기보유 자사주를 활용한 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은행과는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증권업종 - 25E 총 주주환원을 전망(소각 기준)



자료: 각사, SK 증권 추정
주: 기보유 자사주 소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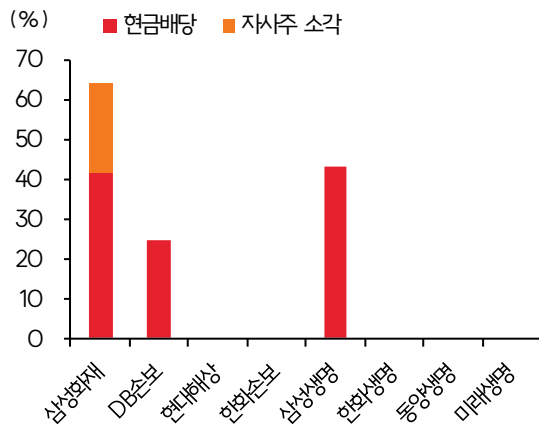
증권업종 - 25E 배당수익률 전망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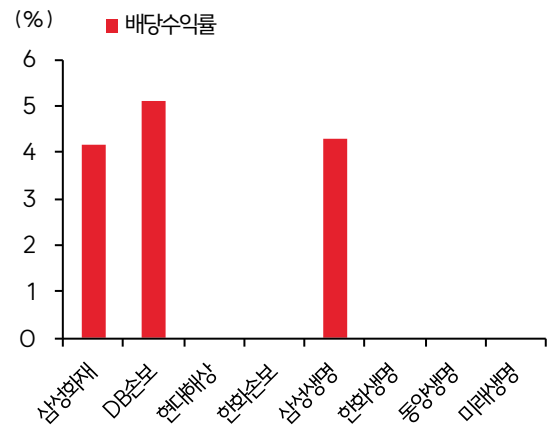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험업종의 경우 IFRS17 회계기준 도입 이후 높아진 이익 수준과 별개로 현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등 영향으로 한화생명, 현대해상, 동양생명,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등 중하위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밸류에이션이 낮더라도 제도 개편 없이는 주주환원 재원 등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제도가 개편되어도 충분한 손실 흡수여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주주환원과 전반적인 수익률 등 측면에서는 은행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다.

보험업종 - 25E 총 주주환원을 전망(소각 기준)



자료: 각사, SK 증권 추정
주: 기보유 자사주 소각 포함

보험업종 - 25E 배당수익률 전망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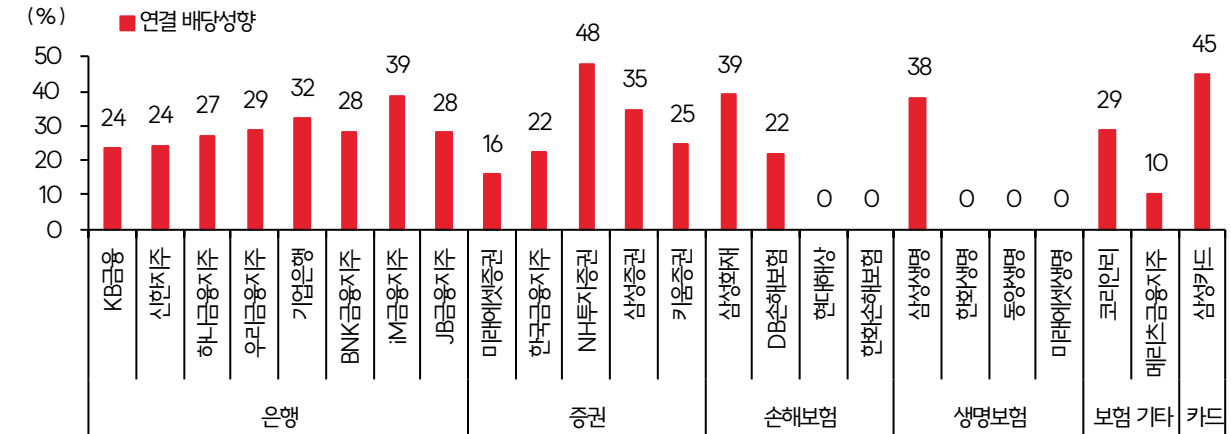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기대감의 경우에도 일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년 기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인 배당성향이 35%를 초과하거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한 회사로는 NH투자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5년의 경우 기업은행의 연결 기준 배당성향이 약 3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iM 금융지주의 경우 24년 중 배당성향이 약 39%를 기록했으나 이익이 PF 총당금 등 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 배당성향이 상승한 점을 감안했을 때 지속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한다.

은행업종의 경우 현재 총 주주환원율은 40%를 상회하고 있으나 대부분 배당성향은 20% 중반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제시된 배당성향 기준으로는 기업은행 외에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 공개한 밸류업 공시에서 은행들이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추진 계획을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각 은행이 Target으로 제시한 PBR 수준을 달성하여 저평가 수준에서 충분히 벗어났다고 예상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Mix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긴 호흡에서 배당성향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의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은행업종의 경우 기업은행 제외 시 35% 초과하는 배당성향 달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증권업종이나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된 일부 보험업종의 경우에도 최근 주가 상승에 따라 배당수익률 측면의 매력이 이전보다는 낮아진 상황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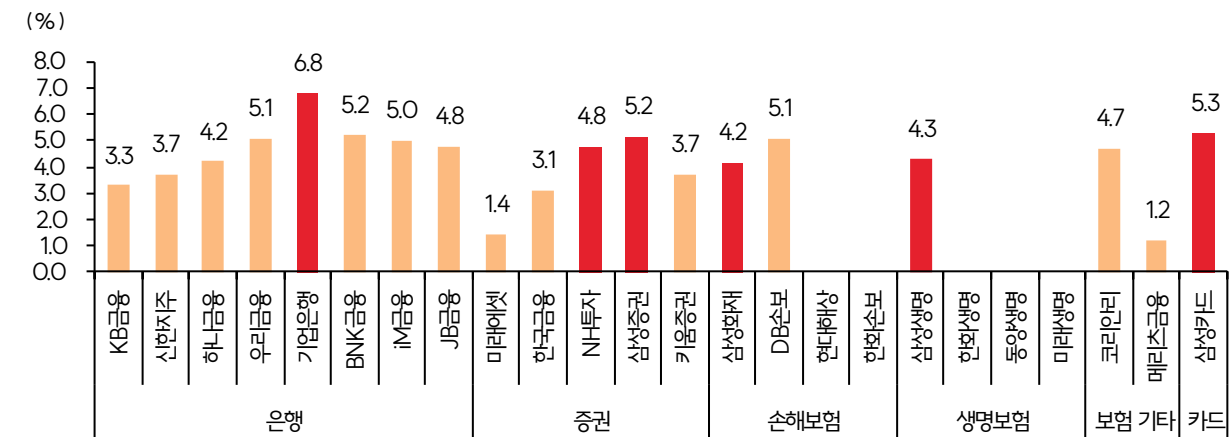
예상되는 배당성향이 35%를 초과하는 기업 중 현재 배당수익률 측면의 매력이 높은 회사가 해당 제도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시된 기준 및 당사 추정치 기준 기업은행,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이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커버리지 금융업종 - 24년 연결 기준 배당성향



자료: FnGuide, SK 증권

커버리지 금융업종 - 25E 배당수익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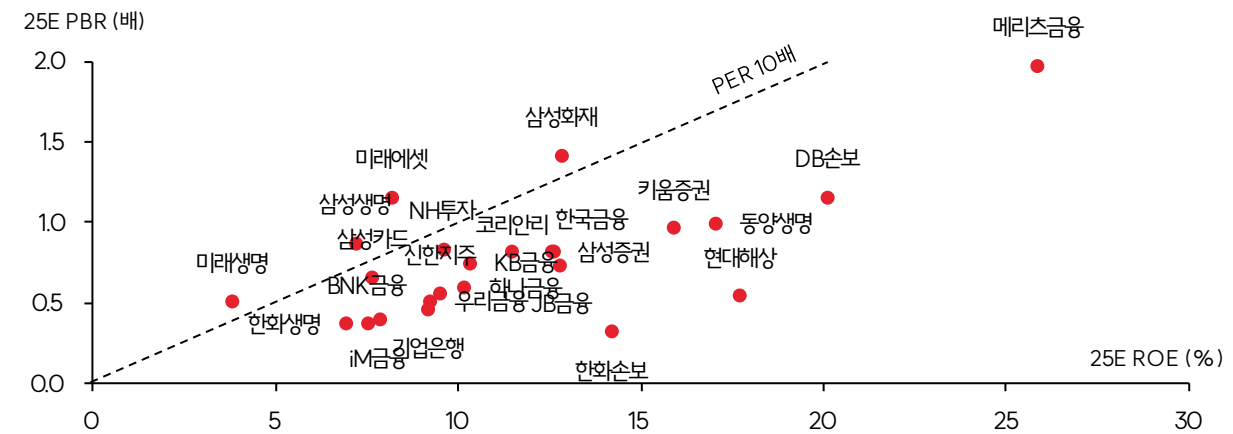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주: 25년 배당성향 35% 초과 예상되는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2) 밸류에이션 측면의 부담 여부에 대한 고려

금융업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ROE 와 PBR 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는 리스크 기반의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금융업종의 특성상 자본 활용의 효율성이 주주가치에 있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기인한다. 자본적정성 규제가 요구되는 금융업종 특성 상 보유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RO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PBR 의 적정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재 예상되는 25EROE와 PBR 수준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Matrix 를 산정해봤을 때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일부 기업의 경우 다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25E 배당수익률 측면에서도 일부 회사의 경우 국고채 수익률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수준의 실적을 상회하는 이익 창출 여부나 추가적인 주주환원 확대 정책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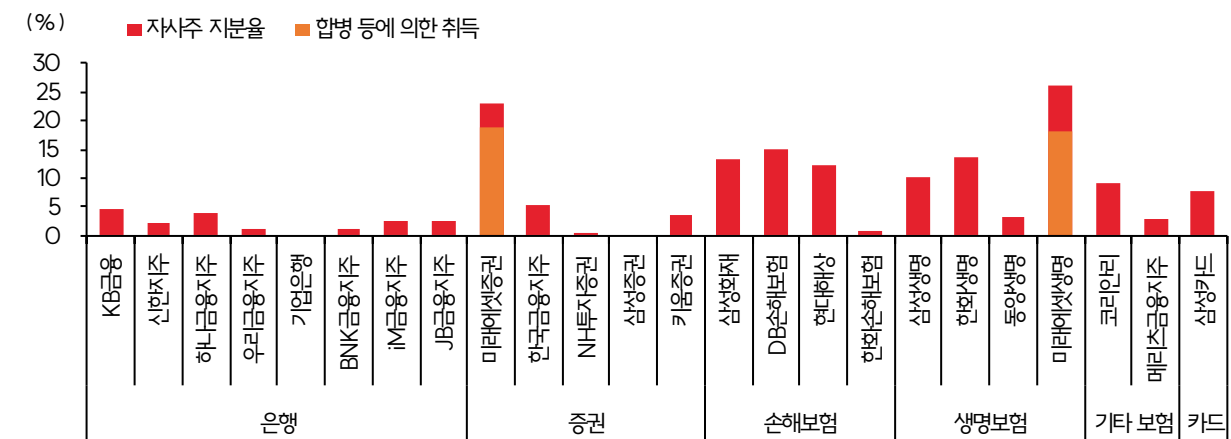
커버리지 금융업종 25E PBR-ROE Matrix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최근 제시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보유 자사주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게 될 경우 주당가치 제고에 따라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는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사 커버리지 기업 중에는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자사주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고 있다(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 포함). 이 중 10%를 초과하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주식 수 감소에 따른 BPS 등 주당 가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커버리지 금융업종 - 자사주 지분 현황



자료: FnGuide, SK 증권

1Q25 자본 중 신종자본증권과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BPS 를 기준으로 주당가치 증가 폭을 추정해본 결과 미래에셋생명 19.5%, 미래에셋증권 11.4%, DB 손해보험 5.5% 수준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는 0.2%~3.6% 수준의 BPS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사주 10% 소각 가정 시 BPS 증가 폭 추정

기업명	전체 주식 수	보통주 기준 10% 초과 자사주	10% 초과분 소각 가정 시 상장 주식수 (우선주 포함)	1Q25 자본총계 (비지배지분 및 신종자본증권 차감)	1Q25 BPS	소각 가정 시 1Q25 BPS	증가 폭
미래에셋증권	721,892,158	74,004,233	647,887,925	12,173,062	16,863	18,789	11.4%
삼성화재	49,110,665	1,581,743	47,528,922	15,022,714	305,895	316,075	3.3%
DB 손해보험	70,800,000	3,676,531	67,123,469	7,493,145	105,835	111,632	5.5%
현대해상	89,400,000	2,045,500	87,354,500	4,212,839	47,123	48,227	2.3%
삼성생명	200,000,000	425,221	199,574,779	29,510,972	147,555	147,869	0.2%
한화생명	868,530,000	30,286,750	838,243,250	8,470,815	9,753	10,105	3.6%
미래에셋생명	177,016,189	28,834,570	148,181,619	2,466,797	13,935	16,647	19.5%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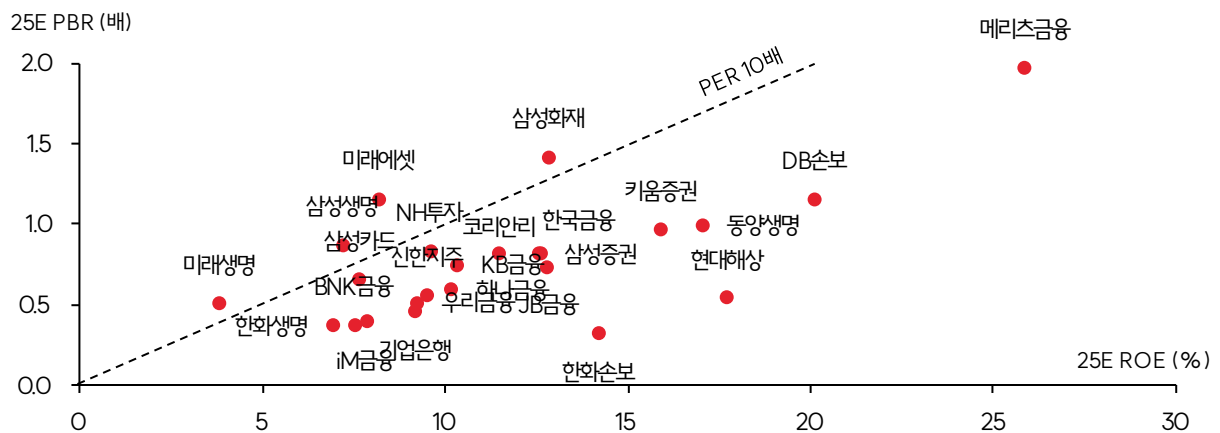
10% 초과 자사주 소각 가정 시 밸류에이션 변화 추정

산업	기업명	당사 추정치			10% 초과 자사주 소각 가정	
		ROE (%)	PBR (배)	Implied CoE (%)	PBR (배)	Implied CoE (%)
증권	미래에셋증권	8.1	1.2	7.0%	1.0	7.8%
손해보험	삼성화재	12.8	1.4	9.0%	1.4	9.3%
	DB 손해보험	20.1	1.2	17.2%	1.1	18.2%
	현대해상	17.7	0.5	32.2%	0.5	33.0%
생명보험	삼성생명	7.1	0.9	8.1%	0.9	8.1%
	한화생명	6.9	0.4	18.4%	0.4	19.0%
	미래에셋생명	3.8	0.5	7.3%	0.4	8.8%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다만 이러한 BPS 증가 폭을 반영하더라도 현재 예상되는 25E ROE 수준과 현재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DB 손해보험 외에는 주당가치 증가에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한다. 현대해상/한화생명의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나 배당재원 등 확보 측면의 불확실성에 따른 디스카운트 고려가 필요할 전망이다.

커버리지 금융업종 25E PBR-ROE Matrix



자료: FnGuide, SK 증권 추정

(3) 주주환원 및 밸류에이션 모두 부담 없는 회사 선호

최근 전반적인 환경적 변화는 금융업종에 있어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진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대가능한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익 규모와 밸류에이션 수준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업종 전체 중에서는 은행업종의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과 밸류에이션 측면의 부담이 가장 적다고 판단한다. 증권업종의 경우 이익 기대감은 유효하나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측면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보험업종의 경우 상위사-하위사 간 현황이 다소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상위사의 경우 밸류에이션 측면의 부담을, 하위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대 가능한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배당 등 자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은행업종의 경우 상위사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등 실질적인 주주환원 여력과 밸류에이션 매력에 기반한 Upside 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며 증권업종의 경우 ROE 수준을 감안한 PBR 측면의 Upside 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주주환원 측면의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삼성증권 등을 선호한다. 보험업종의 경우 상위사 중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의 매력이 높으며 배당수익률 측면의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DB 손해보험을 선호한다.

Compliance Notice

작성자(관리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5년 07월 10일 기준)

매수	96.82%	중립	3.18%	매도	0.00%
----	--------	----	-------	----	-------